

무주-서귀포, 도시재생 협력 구축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민 공동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제주 서귀포시와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르면,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내륙의 산악형 도시와 제주 원도심 지역이 경계를 넘어 도시재생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 있는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두 기관은 앞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체계와 공간 활용 원칙, 관리 방식 등을 공유하며 상호 벤치마킹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 특화 콘텐츠,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을 함께 발굴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무주읍 도심 거점시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농촌·산악형 도시재생 경험을 공유하고, 서귀포시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쌓아온 원도심 재생 노하우를 전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지역 환경과 인구 구조를 가진 두 지역이 현장 경험을 교환하면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무협의회는 오는 7월 구성된다. 양 기관은 연간 교류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첫 상호 방문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점시설 운영 우수사례 교류회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운영 동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참여 감소와 거점시설 활용 저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경험과 실패 사례까지 공유하려는 시도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홈 클리닝

무주군, 200여 가구 대상 추진

무주군이 단순 주거 청소를 넘어 고독사 예방과 정서 돌봄까지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확대에 나섰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장형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감 강화를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단순 방역이나 일회성 청소 지원



원에 머물지 않고 반복 방문을 통한 생활환경 관리와 안부 확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사업과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대상 가구를 연 3회 직접 방문해

친환경 소독제를 활용한 실내 방역과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방 냉장고 정리와 후드 필터 청소, 실내 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병행해 호흡기·피부질환 등 각종 생활환경 질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령 독거노인의 경우 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사업이 건강관리와 정서 안정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안부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고령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예방 체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생활 현장 중심의 방문형 복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 전북 군 단위 최초 '방문운동지도 서비스' 개시

진안군은 지난 13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방문운동지도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진안군은 지난 13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방문운동지도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밝혔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 군 단위 최초로 방문운동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재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방문목욕 서비스도 추진한다.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금강복지센터 △쌍천노인복지센터 △진무장재가복지센터 △진안다양노인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4개소를 선정했고,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구세의원 △송외과의원 △용담한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 과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군민 70%가 대상이며, 특별 지역인 진안군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 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0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진안고원행복상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환수됨에 따라 군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기한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처는 진안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진안고원행복상품권(카드)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환급성 업종, 유증·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4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지원에 이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수군의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5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민들은 국민비서 '구베'의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을 신청한 군민은 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등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안내받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장수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13일 장수영재교육원에서 2026 장수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AI·디지털 기반 미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는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2개 종목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참여했다.

대회에는 과학토론 부문 초등 1팀·중등 4팀, 융합과학 부문 초등 2팀·중등 3팀 등 총 10개 팀(20명)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열린 탐구와 경쟁을 펼쳤다.



융합과학 부문은 실생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탐구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토론 부문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종목별 금상 수상팀은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2026 전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장수군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와룡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장수치유의숲'과 발화동자연휴양림 두 곳에서 진행했다.

먼저 '장수치유의숲'에서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오감을 깨우는 '숲속 맨발 걷기'와 지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로마 발 마사지'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숲방울 골프와 새총 쏘기 등 체험 활동도 마련돼 참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발화동자연휴양림'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돕는 '오감 체험'을 비롯해 카프라 블록을 활용한 창의 놀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일상에서 부족했던 대화와 교감의 시간을 나누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맨발걷기 좋은 길' 개장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된 '맨발걷기 좋은 길'이 단장을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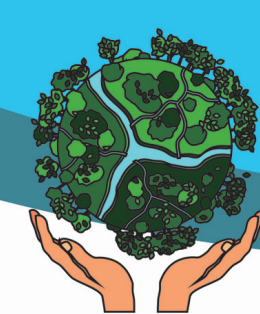
진안군은 최근 건강과 치유 중심의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를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장한 맨발걷기 길은 사암제를 거쳐 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1.4km 구간으로, 황토와 마사토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되었다. 구간별 특성을 살려 사양재 순환 마사토길과 생태공원(구 안석원) 내 황토길, 맨발걷기 테마존(황토밭길, 자갈장), 세족장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다양한 촉감을 체험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맨발걷기 길의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